

한국 속담과 관용어의 원전 탐색

Tracing the original text of Korean Proverbs and Idioms

양인종(楊人從)

대만, 중국문화대학

Yang, Jen-tshung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1. 들어가기

지역간 왕래가 빈번해지면 교류가 있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중국, 몽골, 만주, 일본 등과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어에 이들 타문화의 요소가 들어 있을 법하다.

한국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과 관용어는 중국 漢語와 대조해 보면 비슷한 뜻을 가진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 혹 이것들이 문화 교류의 소치로 여겨, 그의 출전은 어떤지가 궁금 거리다.

1.1. 연구 대상 및 문헌 검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에 의미가 비슷한 속담과 관용어를 중국의 옛 문헌에서 찾으려고 했다. 우선 속담 자료로는 한국에서 출판된 국어 사전과 속담 사전을 근거로 한다. 이미 사전에 올려 있는 것이라면 한국의 속담과 관용어로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李基文(1953)에서 보면 한자로 표기된 속담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과 한국에서 자생한 것 2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공 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것은 旬五志 및 松南雜識에서 積功之塔不墮也라 하고 涑上方言 東言解 耳談續纂 등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한자로 기록된 것이다. 중국에서 없는 속담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李基文(1953)의 권말 부록에서 한자 속담과 成語가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의 속담에 올려 있지 않은 것이 많다. 가령

河東獅吼(하동의 사자가 울부짖는다.)

鳥足之血(새 발의 피)

등은 속담보다 관용어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원영섭(1993)은 양이 많고 표제어에 한자성어가 없는 속담사전이다. 그러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잘 정리되어 그에 해당하는 한자성어가 곁들여 있어 연구하는 데 편리하다. 그러나 한자성어의 출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이외에 송재선(1993,1995,1997), 정태룡(1994,1997,2000)은 한국 민간에서 채집해 온 상말, 욕설 등의 집대성이지만 간혹 중국의 얼이 담겨져 있는 말도 발견된다.

관용어는 한국의 많은 국어 사전에서 수록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속담

속담은 한 언어 사용 대중이 생활하면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며 오랫동안 사용돼 오다가 간결화되면서 의미심장하게 농축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국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은 한국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생한 것도 있고 외계로부터 도입하여 빌려 쓴 것도 있다. 후자는 특히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쓴 것이 많다.

한국 속담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여 그 번역문에 의거하여 중국 원전을 찾아 보았다.

2.1. 四字成語

중국 한어의 문자인 한자는 四字成語 詩 詞와 같은 짧은 음절 문장을 발전하는 데 알맞은 문자이다. 짧은 4개 음절로 한 이야기를 농축하여 설명하고도 족하다. 그러나 한국어는 다음절 언어로서 사자성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좀 어렵다. 그래서 풀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일쑤다.

(1)

a.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

雲從龍，風從虎。

《易經·乾卦·九五》：「水流濕，火就燥，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睹」

b. 달도 차면 기운다

月圓必缺(月滿則虧、月盈則虧)

《易經·豐卦》：日中則昃，月盈則食。

c.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

如履薄冰

《詩經·小雅·小旻》：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

d.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登高自卑。

《老子·第六十四章》：合抱之木，生於毫末；九層之臺，起於累土；千里之行，始於足下。

e. 당랑이 수레를 버티는 썸

螳螂當車

《莊子·人間世》汝不知夫螳螂乎？怒其臂以當車轍，不知其不勝任也，

f. 나무도 쓸 만한 것이 먼저 베인다.

直木先伐

《莊子·外篇·山木第二十》直木先伐，甘井先竭。

g.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

良藥苦口，忠言逆耳。

《韓非子·外儲說左上》夫良藥苦於口，而智者勸而飲之。知其入而已已疾也；忠言拂於耳，而明主聽之，知其可以致功也。

h. 털을 불어가면서 흠을 찾는다.

吹毛求疵

《韓非子·大體》寄治亂於法術，託是非於賞罰，屬輕重於權衡；不逆天理，不傷情性；不吹毛而求小疵，不洗垢而察難知。

i. 외손뼉이 울지 못 한다

孤掌難鳴

《韓非子·功名》故曰：一手獨拍，雖疾無聲

j.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다.

緣木求魚

《孟子·梁惠王上》以若所爲，求若所欲，猶緣木而求魚也。

k.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亡羊補牢

《戰國策·楚策四》：見兔而顧犬，未爲晚也；亡羊而補牢，未爲遲也。

l. 뽕밭이 바다가 된다.

桑田滄海(桑田碧海)

晉·葛洪《神仙傳》(據《初學記·卷六·地部·海》引)麻姑謂王方平曰：「自接待以來，見東海三爲桑田。向到蓬萊，水乃淺於往者略半也，豈復將爲陵陸乎！」方平乃曰：「東海行，復揚塵耳。」

m.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唇亡齒寒

《左傳·僖公五年》諺所謂輔車相依，脣亡齒寒者，其虞、虢之謂也。

n.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眾口鑠金

《國語·周語下》故諺曰：眾心成城，眾口鑠金。

o. 여우가 죽으니까 토끼가 슬퍼한다.

狐死兔悲

敦煌變文《鶯子賦》(據《敦煌變文集新書·卷七》引)：家兄觸忤明公，下走實增厚愧，切聞狐死兔悲，物傷其類；四海盡爲兄弟，何況更同臭味。

p. 귀 막고 방울 도둑질 한다.

掩耳盜鈴

《呂氏春秋·不苟論·自知》范氏之亡也，百姓有得鍾者，欲負而走。則鍾大不可負，以椎毀之，鍾況然有音。恐人聞之而奪己也，遽掩其耳。

q.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流水不腐。

《呂氏春秋·季春紀·盡數》：流水不腐，戶樞不蠹。

r. 쏘아 놓은 살이요 얼지른 물이다.

射出的箭，潑出的水。

宋·王楙《野客叢書·卷二八》：心堅石穿覆水難收

s. 궁한 도둑은 쫓지 말라.

窮寇莫追

《三國演義·第九十五回》：兵法云：歸師勿掩，窮寇莫追。

t. 눈은 있어도 망울이 없다.

有眼無珠

《西遊記·第六回》：你這廝有眼無珠，認不得我麼！吾乃玉帝外甥，封昭惠靈顯王二郎是也。

u. 단는 말에 채찍질한다.

快馬加鞭

宋·王安石〈送純甫如江南〉詩（據《臨川先生文集·卷二四·律詩》引）此去還知苦相憶，歸時快馬亦須鞭。

v. 구두 신고 발등 긁기

隔鞋搔癢

《景德傳燈錄·卷二二·福州康山契穩法寶大師》師曰：隔靴搔癢。

w. 눈 위에 서리 친다.

雪上加霜

《景德傳燈錄·卷八·大陽和尚》汝只解瞻前，不解顧後。」伊云：「雪上更加霜。」

위에서 예로 한 사자성어는 사실 출전보다 시대가 앞서 생성된 말이 많다. 타처에서 들어온 말인 諺所謂 常言道 등d1 이기 때문이다.

2.2. 대구 형식의 속담

한 쌍의 반대되는 말이 나열하는 형식을 취한 속담은 한국어로 번역되어도 역시 대조의 말로 된다.

(2)

a.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 수 있으나 제가 만든 화는 피할 수 없다.

天作孽猶可違，自作孽不可活。

《書經·太甲中》：天作孽，猶可違；自作孽，不可違。

- b.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虎死留皮，人死留名
 《新五代史·卷三十二·死節傳·王彥章傳》：彥章武人不知書，常爲俚語謂人曰：豹死留皮，人死留名。
- c.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福無雙至，禍不單行。
 劉向《說苑·卷一三·權謀》
- d.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謀事在人，成事在天。
 《三國演義·第一〇三回》：不期天將大雨，火不能著，哨馬報說司馬懿父子俱逃去了，孔明歎曰：謀事在人，成事在天。不可強也！
- e. 룡은 룡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는다.
 龍生龍，鳳生鳳。
 丹霞語：「龍生龍，鳳生鳳」
- f. 검은 데 가면 검어지고 흰 데 가면 희어진다.
 近墨者黑，近朱者赤。
 晉·傅玄·《太子少傅箴》：近朱者赤，近墨者黑。
- g. 오얏나무 아래서 갓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서 짚신 고쳐 신지 말랬다.
 李下不正冠，瓜田不納履。
 漢·無名氏·《君子行》：君子防未然，不處嫌疑間。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
- h. 고기 보고 기뻐하지 말고 가서 그물을 뜨라.
 臨淵羨魚，不如退而結網
 《漢書·卷五十六·董仲舒傳》：古人有言曰：臨淵羨魚，不如退而結網。
- i. 닭의 대가리가 쇠꼬리보다 낫다.
 닭의 벼슬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
 寧爲雞口，無爲牛後
 《戰國策·韓策一》：臣聞鄙語曰：寧爲雞口，無爲牛後。今大王西面交臂而臣事秦，何以異於牛後乎？

2.3. 조건문 형식의 속담

앞에 제시된 명제 내용이 성립될 경우 뒤에 제시된 명제 내용이 따른다는 문장을 조건문이라 본다. 이와 관련한 속담은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3)

a. 옥을 쪼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玉不琢，不成器

《禮記·學記》：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

b.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鐵杵磨成針

宋·祝穆《方輿勝覽·卷五三·磨鍼溪》世傳李太白讀書山中，未成，棄去。過是溪，逢老媪方磨鐵杵，問之，曰：欲作針。太白感其意。還，卒業。

c. 호랑이는 그려도 뼈는 못 그리고 사람은 사귀어도 속을 모른다

범은 그려도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은 사귀어도 마음은 알기 어렵다.

畫虎難畫骨，知人知面不知心

《增廣賢文》：畫虎畫皮難畫骨，知人知面不知心。

d.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有錢能使鬼推磨

明·沈璟·《義俠記·第十二齣》：有錢能使鬼推磨，一分錢鈔一分貨。

e. 죽을 땅에 빠진 후에 산다.

置之死地而後生

《孫子》云：置之死地而後生。

f. 차면 넘친다.

滿則溢

《史記·卷七十九·范雎蔡澤傳》：語曰 日中則移，月滿則虧。物盛則衰，天地之常數也。

g. 조강지처는 버리지 않는다.

糟糠之妻不下堂。

明·朱權·《荆釵記·第十九齣》：「丞相不聞宋弘有云：糟糠之妻不下堂，貧賤之

交不可忘。」

h. 패군의 장수는 용맹을 말하지 않는다.

敗軍之將不言勇

《史記·卷九十二·淮陰侯傳》： 臣聞敗軍之將，不可以言勇。

2.4. 고지형 속담

생활에서 관찰하여 얻은 사리를 고지하는 속담들이다.

(4)

a. 개미 구멍으로 독을 무너뜨린다.

千里之堤，潰於蟻穴

《韓非子·喻老》： 千丈之堤，以螻蟻之穴潰；百尋之室，以突隙之煙焚。

b. 한 번 질수(失手)는 병가(兵家) 의 상사(常事)

勝敗乃兵家常事

《水滸傳·第五十五回》： 吳用勸道： 哥哥休憂，勝敗乃兵家常事，何必掛心？

別生良策，可破連環軍馬。

c.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一年之計在於春

南朝梁·蕭繹《纂要》： 一年之計在於春，一日之計在於晨。

d. 토끼도 세 굴(窟)을 판다

狡兔三窟

《戰國策·齊策四》馮諼曰：「狡兔有三窟，僅得免其死耳。今君有一窟，未得高枕而臥也。」

e. 호랑이 제 새끼 안 잡아 먹는다

虎毒不食子

明·楊珽《龍膏記·第十四齣》： 你爹爹既往洛陽，一時未歸，待異日我自慢慢勸他，虎毒尚不食兒，孩兒切莫短見。

2.5. 속담의 한국 현지화

중국 속담을 받아들여 쓰다가 한국 현지에 맞게끔 손질하기도 한다.

(5)

a. 질풍에 경초를 안다.

疾風知勁草

《東觀漢記·卷一〇·王霸列傳》謂霸曰：潁川從我者皆逝，而子獨留，始驗疾風知勁草。

b. 빠른 바람에 굳센 풀을 안다.

疾風知勁草를 a.로 번역해서 쓰다가 좀 쉬운 말인 b.로 고쳐 쓴 것이다.

(6)

a. 먼 데 일가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遠親不如近鄰

《水滸傳·第二十四回》：「常言道：遠親不如近鄰，休要失了人情。」

이 속담은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로 앞뒤 사항을 바꾸어 긍정문으로 고쳐 쓰기도 하고, 한국의 사정에 맞게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하고, 나아가 가까운 사람이 아무래도 먼 데 친척보다 좋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미운 사람도 고사하고 동원하여 ‘지척의 원수가 천 리의 벗이라.’ 하기까지 한다. 이 속담은 ‘먼 일가와 가까운 이웃 ‘이웃사촌’ 등 명사형 절의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7)

a. 왕후 장상이 씨가 있나?

王侯將相豈有種?

《史記·卷四十八·陳涉世家》：王侯將相寧有種乎！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평등하다는 말인데 이를 ‘왕후 장상의 씨가 있다더냐?’로 강조한다. 이 모형 구조로 후천성 때문에 생긴 버릇을 강조하는 뜻으로 ‘도둑의 씨가 없다.’, ‘오이는 씨가 있어도 도둑은 씨가 없다.’로 고쳐 쓰기도 한다.

2.6. 중국 속담 수용 과정

위에서 밝힌 한문계 속담은 그의 수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짐작된다.

[1]. 원전 그대로 인용되다

오늘 자국어어를 하면서 외국어를 인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그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옛날 한국어어를 하면서 중국어를 끼어 말할 때 필시 중국어 그대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춘향전에서

(1)

밤은 깊어 삼경인되 안자쓴들 임이 올라, 누워슨들 잠이 오랴. 임도 잠도 아니

온다. 이 일을 어이하리. 아 도 원수로다. 흥진비 고진감 예로부터 잇건만
는 지달임도 적지안코 ..(李基文 1954:579)재인용

‘흥진비 고진감’는 興盡悲來 苦盡甘來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흥진비래와 같은 비관적인 것이 버려지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한국 속담이 된 것이다.

[2]. 한국어로 옮겨지다

苦盡甘來를 예로 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와 같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
다 쉽게 받아들여진다.

[3]. 한국의 환경에 맞도록 개조하다

가령 種瓜得瓜, 種豆得豆는

(2)

a. 팔을 심으면 팔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喻世明言·卷二十九·月明和尚度柳翠》：假如種瓜得瓜，種荳得荳，種是因，
得是果。

원전을 보면 앞뒤 순서가 뒤바뀐다. 순서가 바뀔 뿐 뜻은 같다. 이러다가 좀 더
간결화된다.

(3)

a.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팔 난다.

b. 콩에서 콩 나고, 팔에서 팔 난다.

c. 콩 날 데 콩 나고 팔 날 데 팔 난다.

그리하다가 반문조로 고쳐 쓰기도 한다.

(4)

a. 콩 심은 데서 팔 나올 리 없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환경을 상기시켜 개조한다.

(5)

a. 가시 나무에 가시가 난다.

(6)

a. 대 끝에서 대가 나고, 싸리 끝에서 싸리 난다.

b. 대나무에서 대 나온다.

(7)

a. 배나무에서 배 열리지, 감 안 열린다.

(8)

- a. 오이 덩굴에 오이 열리고 가지 나무에 가지 연다.
- b. 외 덩굴에 가지 열릴까.
- c. 오이 덩굴에서 가지 열리는 법은 없다.

(9)

- a. 왕대 밭에 왕대 난다.
- b. 외 심은 데 콩 나라.
- c. 조 심은 데 조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러다가 결론을 지은 것도 지어낸다.

이것은 유전학적인 말이기도 하고 인과관계의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 다음과 같은 말이 생길 법하다.

(10)

- a. 애를 쓰는 이만큼 보람이 난다.

種瓜得瓜，種豆得豆보다 유전학적인 말은 龍生龍，鳳生鳳인데

(11)

- a. 용은 용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는다.

《通俗編・禽魚引普燈錄》：龍生龍，鳳生鳳，老鼠養兒沿屋棟。

이것이 다음과 같이 개조된다.

(12)

- a.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다.

또한 酒後吐真言이란 말이

(13)

- a. 상시(常時)에 먹은 마음 취중(醉中)에 난다.
- b. 평시에 먹은 마음 취중에 나온다.
- c. 취담 중에 진담이 있다.
- d. 취중에 진담 나온다.

복잡한 말이 점점 간결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부연의 말도 만들어졌다.

(14)

- a.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 b. 수풀의 평은 개가 내몰고, 오장의 말은 술이 내뿜다.

또한 취한 사람의 말이 참말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의 말과 대조시키기도 한다.

(15)

a. 술 취한 사람과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

[4] 원전이 잊혀진 채 사용하다

위의 과정을 거쳐 오랫동안 쓰면서 전해 내려오다가 원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단계에 접어든다.

3. 관용어

관용어는 속담과 같이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익히 사용해온 말로 단어, 절,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어형이 고정된 말들이다. 그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언어의 사용 대중이 공동으로 받아들이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해당 사건의 배경을 생략한 채로 바로 사건의 결과를 말해 버림으로써 일종의 언어 유희라 할 수 있다.

관용어는 해당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는 사설이다. 한국의 자생 문화로 생긴 관용어는 특히 그렇다. '국수 먹다,' '미역국 먹다, 시치미 떼다' 등은 배경 해설이 없는 한, 단지 무슨 동작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한국의 관용어 가운데 그의 의미를 중국어로 직역하면 바로 중국어의 관용어 의미가 된다는 사실에 적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체 언어에 관한 관용어는 거의 비슷한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 기관의 비유적인 의미도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각자의 문화에서 생긴 것이라면 하필이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비유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간 중국과의 문화 교류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한중 관용어 대역의 형식으로 하여 출전을 밝힌다.

3.1. 신체 기관으로 비유한 관용어

한국 관용어에서 인류의 사고 행위를 사람의 기관으로 비유하는 것이 중국의 고사 성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3.1.1. 몸

한중 관용어에서의 몸이란 신체, 처지, 상황 등을 지칭한 것이다.

(1)

몸 둘 곳이 없다 無置身之地

置身：「真一時**置身**無地」《紅樓夢·第三十回》

(2)

몸을 담다 安身,棲身,藏身,從事

安身：正義言審知恭敬辭讓所以養體**安身** 《新校本史記/書/卷二十三禮書第一》

安身：「溫柔富貴鄉去**安身**樂業」《紅樓夢·第一回》

(3)

발을 디딜 틈이 없다 無踩地之隙

입추의 여지가 없다 無立錐之餘地

無立錐之地：滅六國之後，使**無立錐之地** 《新校本史記/世家/卷五十五留侯世家第二十五》

立足：「欲谷喪師，**立足無地**」《新校本舊唐書/列傳/卷六十八列傳第十八/張公謹》

(4)

몸을 바치다 獻身

獻身：《廣雅釋言》「祭，際也」上文「以身解於陽盱之河」，《淮南子》高誘注：「爲治水解禱，以身爲質。解讀解除之解」謂以身爲質，爲解除洪水災害祈禱，也就是決心要把洪水治好，不惜捐軀**獻身**之意。《齊民要術校釋/齊民要術序》

(5)

몸을 허락하다 許身

許身：許身於國 《新校本魏書/列傳/卷九十九列傳第八十七/盧水胡沮渠蒙遜》

(6)

몸을 팔다 賣身

賣身：「制諸飢民**賣身**已贖放爲良」《新校本金史/本紀/卷三本紀第三/太宗/吳乞買/天會二年》

賣身：「貧而**賣身**者，六百餘人」《新校本金史/志/卷四十六志第二十七/食貨一/戶口》

(7)

몸을 가지다 有身

有身：遂**有身**而生男 《新校本宋書/志/卷二十七志第十七/翼瑞上》

有身：已而**有身**，遂產高祖 《新校本史記/本紀/卷四周本紀第四》

(8)

몸을 빼다

抽身,脫身

抽身：因怕他耽延工夫，遂**抽身**走開了。《紅樓夢》

抽身：見了賈芸，**抽身**要躲。《紅樓夢》

抽身：「仙嶼孤懸雪浪春，桑麻舊話課鄉鄰。飲從十日**抽身**暇，山別多年入眼新」《采訪錄/金門志/正文/卷十四藝文志/藝文志/詩/前題(蔡復一)》

(9)

허리를 굽히다

折腰

折腰：潛歎曰：「吾不能爲五斗米**折腰**，拳拳事鄉里小人邪！」《新校本晉書/列傳/卷九十四列傳第六十四/隱逸/陶潛》

(10)

길을 가는 사람

路人

行路：行**路**聞之，莫不流涕 《新校本後漢書/列傳/卷六十七黨錮列傳第五十七/范滂》

路人：「司馬昭之心，**路人**所知也」《新校本三國志/魏書/卷四魏書四三少帝/高貴鄉公》

(11)

이름을 걸다

掛名

掛名：及觀宗棠奏論關內外舊屯之遜，以謂**掛名**兵籍，不得更事農

《新校本清史稿/列傳/卷四百十二列傳一百九十九/悟宗棠》

掛名：「賴祖父之舊情分，戶部**掛虛名**，支領錢糧」《紅樓夢·第四回》

(12)

이름을 남기다

留名

留名：俚語謂人曰：「豹死留皮，人死**留名**。」《新校本新五代史/傳/卷三十二死節傳第二十/王彥章裴約劉仁贍/王彥章》

(13)

복병을 만나다

碰到伏兵

伏兵：馬陵道狹，而旁多阻隘，可**伏兵** 《新校本史記/列傳/卷六十五孫子吳起列傳第五/孫子》

3.1.2. 머리

머리가 움직이면서 전달하는 신체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 거절한다는 의미고, 아래로 끄덕하면 동의하는 의미고, 위로 쳐들면 좋아하는 의미다. 이런 것들이 중국어와 비슷하다.

(14)

고개를 내밀다	伸頭,出席,露臉
머리를 내밀다	伸出頭,露臉

出頭：當這事感則這理應，當那事感則那理應，這便是性；**出頭**露面來底便是情，其實只是一箇物事。而今這裡略略動，這三箇便都在。《朱子語類/朱子語類/卷第一百一十六朱子十三 / 訓門人四》

出頭：素日晴雯不**出頭**，因連日不自在，並沒十分粧飾。《紅樓夢》

出頭：如今他也裝病在家，不肯**出頭**了。《紅樓夢》

出頭：我見這「長」字號兒的在這裡，不犯給他**出頭**。《紅樓夢》

(15)

머리를 내밀다	伸出頭,露臉,出席
---------	-----------

露面：去年采擇良家子女，**露面**入殿，帝親簡閱，務在姿色。《新校本晉書/志/卷二十七志第十七/五行上/水不潤下》

(16)

머리를 숙이다	低頭
고개를 숙이다	低頭

低頭：「疏：俯，**低頭**也。自知暗鷺，不達聖言，於是**俯首**羞慚，仰天歎息，神魂恍惚」《莊子集釋 / 莊子集釋 / 卷八上 / 雜篇 / 庚桑楚第二十三》

(17)

고개를 조아리다	叩頭
----------	----

叩頭：「人謂天有眼，我夜焚香露禱，**叩頭**至數百，乃漠然不一顧耶？」《新校本清史稿 / 列傳 / 卷五百八列傳二百九十五列女一 / 吳芬女》

(18)

고개를 짓다	搖頭
--------	----

고개를 흔들다 搖頭
머리를 흔들다 搖頭

搖頭：「杜預注僂傳曰：頷，搖頭也。音五感反。」《新校本後漢書 / 列傳 / 卷七十五劉焉袁術呂布列傳第六十五 / 呂布》

搖頭：「賈政聽了，搖頭說：更不好。」《紅樓夢·第十七回》

(19)

머리를 깎다 剃頭

剃頭：一引作父母哀哭求禱神鬼既而經月乃返，**剃頭**爲尼，被服法衣，持髮而歸。
《古小說鈎沈 / 冥祥記》

(20)

머리를 풀다 散髮

散髮：知命樂天，脫簪**散髮** 《新校本宋史/列傳/卷四百五十八列傳第二百一十七/隱逸中/張愈》

思考、思慮

(21)

머리를 쓰다 用頭

用心：「李奶母帶領宋嬭嬭等幾個年老人**用心**看守」《紅樓夢·第五十七回》

3.1.3. 목

고개 안에 음식을 넘기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목구멍이 있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구멍은 생명과 생계를 뜻하기도 한다.

(22)

목구멍에 풀칠하다 餬口

餬口：「幽鍼治肢，足以**餬口**」《莊子/內篇/卷二中/第四人間世》

餬口：「技藝之足以**餬口**也」《商君書/第三篇農戰》

餬口：「偃息窮巷，飯歎**餬口**，并日而食」《新校本三國志 / 魏書 / 卷十一魏書十一 / 管寧 / 王烈》

餬口：「**餬口**江濱」《新校本晉書/列傳/卷四十二列傳第十二/王濬》

餬口：「百姓嗷然無**餬口**之寄」《新校本晉書/載記/卷一百二十二載記第二十二/呂隆》

(23)

목을 놓다

放開喉嚨,放聲

放聲：「自高處**放聲**下來」《朱子語類/朱子語類/卷第七十三易九/小過》

(24)

모가지를 자르다

割脖子

抹脖子：「賈璉在鳳姐身後，只望著平兒殺雞**抹脖子**使眼色兒。」《紅樓夢·第二十一回》

3.1.4. 얼굴

얼굴은 사람의 명예, 명성, 위신과 통하는 것으로 체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회는 꽤 넓다. 중국어에서 얼굴을 지칭하는 명사는 臉, 面, 面目, 顏, 顏面, 面子 등이 있다. 얼굴에 나타난 붉고 푸르고 희고 검은 것은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일시적인 감정의 작용으로 인한 것도 있다. 대개 붉으면 부끄럼, 화가 남의 표현이며, 푸르면 공포를 당함의 표정이며, 흰은 역시 공포에 질려 있음의 상징이며 검은 실의를 당함이다.

(25)

낮을 붉히다

使臉紅,漲紅臉

얼굴을 붉히다

使臉紅

紅臉：，姪兒雖說年輕，卻是他敬我，我敬他，從來沒有**紅過臉**。《紅樓夢》

面紅：「辭色以之，猶今言爭得**面紅耳熱**」《顏氏家訓集解/卷第四/文章第九》

漲紅臉：「今見寶玉如此光景，心中便覺察一半了，不覺也羞的**紅漲了臉面**」《紅樓夢·第六回》

(26)

얼굴이 붉어지다

臉變紅

얼굴이 빨개지다

臉變紅

臉羞紅：寶玉林黛玉二人心裡有病，聽了這話早把**臉羞紅**了《紅樓夢·第三十回》

臉紅：湘雲**紅了臉**，扭過頭去吃茶，一聲也不答。襲人笑道：「這會子又害臊了」《紅樓夢》

臉紅：寶姑娘的話也沒說完，見他走了，登時羞的**臉通紅**。《紅樓夢》

臉紅：寶玉自知這話說的造次了，後悔不來，登時臉上**紅脹起來**，低著頭不敢則一聲。

《紅樓夢》

臉紅：「後悔不及，羞的臉飛紅」《紅樓夢·第四十五回》

臉紅：「登時羞的臉通紅」《紅樓夢·第三十二回》

(27)

낮 뜨겁다	臉熱
얼굴이 뜨겁다	臉熱

臉熱：「我的兒，你又吃多了酒，臉上滾熱」《紅樓夢·第二十五回》

(28)

빈축을 사다	招致輦蹙
--------	------

輦蹙：言朝廷事，或因災異變故，輒輦蹙不樂

《新校本宋史/列傳/卷四百三十列傳第一百八十九/道學四朱氏門人/張洽》

威信、名譽

남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다. 그래서 위신과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29)

낮이 없다	無顏
면목이 없다	沒有面目
볼 낮이 없다	沒見人的臉
대할 낮이 없다	無顏以對

顏面：帝曰：朕今聞過矣，願改之，以終善道。有違此言，當何施顏面與公相見哉」

《新校本新唐書 / 列傳 / 卷九十七列傳第二十二 / 魏徵》

無顏：「師古曰：狀，形貌也。無狀，猶言無顏面以見人也」《新校本漢書/列傳/ 卷六十五東方朔傳第三十五》

沒臉：「如今可要依著我行，錯我半點兒，管不得誰是有臉的，誰是沒臉的，一例現清白處治」《紅樓夢·第十四回》

沒臉：今兒沒了規矩，鬧一場子，討個沒臉，強似受那娼婦的氣。《紅樓夢》

沒臉：下流沒臉的東西。《紅樓夢》

沒臉：沒臉面的下流東西《紅樓夢》

沒臉：賈母笑道：「呸！沒臉的，就順著竿子爬上來了！」《紅樓夢》

沒臉：什麼有臉的地方？一文不賞，我也沒什麼沒臉之處。《紅樓夢》

(30)

낮이 있다

有顏面

有顏面：「帝曰：又聞所在官司，猶自多有顏面。無忌曰：顏面阿私，自古不免」《新校本舊唐書 / 列傳 / 卷六十五列傳第十五 / 長孫無忌》

有臉：「都是，鬧的，你還有臉來問」《紅樓夢·第三十四回》

有臉：「這原不是什麼爭大爭小的事，講不到有臉沒臉的話上」《紅樓夢·第五十五回》
(31)

얼굴을 보다

看臉

賞臉：「太太還賞個臉兒呢」《紅樓夢·第四十四回》

賞臉：菊花盛開，請老祖宗過來散散悶，誰知老祖宗又不賞臉。

臉面：「薛姨媽王夫人等恐礙著邢夫人的臉面，也都漸漸的退了」《紅樓夢·第四十七回》

臉面：「思酒後揮拳，又礙著賴尚榮的臉面，只得忍了又忍」《紅樓夢·第四十七回》

看面子：「有一件事相求，看王爺面上，敢煩老大人作主」《紅樓夢·第三十三回》

(32)

얼굴을 보아 주다

看臉,顧臉,顧面子

顧臉：「你有徇情，經我查出，三四輩子的老臉就顧不成了」《紅樓夢·第十四回》

臉面：他這一件官司，並無難斷之處，皆因都礙著情分臉面，所以如此。《紅樓夢》

臉面：仗著老子娘的臉面，眾人倒捧著他去。《紅樓夢》

臉面：如今何不用計制服，又止息了口聲，又不傷了臉面。《紅樓夢》

(33)

얼굴에 침뱉다

唾面

唾面：「弟曰：人有唾面，絜之乃已。」《新校本新唐書 / 列傳 / 卷一百八列傳第三十三 / 婁師德》

唾面：「偶有怒之者，亦幾乎有唾面自乾之意」《苗栗縣志 / 正文 / 卷十四列傳 / 列傳 / 列女 / 賢婦》

唾面：「被賈母照臉啐了一口唾沫，罵道..」《紅樓夢·第二十五回》

(34)

낮익다

面熟

낮이 익다

臉熟

面善：「生得著實斯文清秀，倒也十分面善」《紅樓夢·第二十四回》

陽功曹柏謁長亦在城中，聞兵攻聲，恐懼，入室閉戶，牽被覆頭。相攻半日，稍敢**出面**。其明，側立而聽。二日，往出戶問消息。至四五日，乃更負楯親，語子緒曰：「勇可習也。」《新校本三國志/ 魏書/ 卷二十三魏書二十三/ 杜襲》

露面：如今你們只別**露面**，我只領了你妹妹去與老太太、太太們磕頭。《紅樓夢》

3.1.5. 눈썹

사람이 번민했을 때 양 눈썹 사이가 좁아지고 좋아했을 때 양미간이 넓어지는 법이다.

(39)

이마의 살을 퍼다

展眉，開顏

伸眉頭：「郭崇韜**眉頭不伸**，常爲租庸惜財用」《新校本新五代史/ 傳/ 卷二十四唐臣傳第十二/ 郭崇韜》

3.1.6. 눈

눈(眼)은 영혼의 창이라 할 만큼 시선이 어디에 두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시선도 길고 짧음이 있어 식견이 있다 없다고 하기도 한다.

關心

(40)

눈에 없다

不在眼中

안중에 없다

不在眼中

안중에 두지 않다

不放在眼中

眼中：魏文帝詩曰：迴頭四向望，**眼中無故人**。《文選/ 詩丁/ 第二十五卷/ 贈答三/ 陸士龍答張士然》

放在眼裡：「周瑞家的如何**放在眼裡**，執意不肯」《紅樓夢·第六回》

放在眼裡：「因此也不把眾人**放在眼裡**，揮霍指示，任其所爲，目若無人」《紅樓夢·第十四回》

(41)

눈에 익다

眼熟

眼熟：「倒像在那裡見過一般，何等**眼熟**到如此」《紅樓夢·第三回》

(42)

눈을 씻다

洗眼

洗眼：「我**洗著眼兒**看著主子奴才」《金瓶梅第十一回》

暗示

(43)

눈을 주다

給眼

눈으로 말하다

眼睛說話,使眼色

眼色：一面說，一面**遞眼色**與劉姥姥。《紅樓夢》

眼色：周瑞家的見他說的粗鄙，只管**使眼色**止他。《紅樓夢》

使眼色：賈璉在鳳姐身後，只望著平兒「殺雞兒抹脖子」的**使眼色**兒，求他掩蓋。《紅樓夢》

使眼色：未發籤時，只見案邊之的一個門子，**使眼色**不令他發籤之意。《紅樓夢·第四回》

遠見、見識

(44)

눈이 있다

有眼

有眼：「人謂天**有眼**，我夜焚香露禱，叩頭至數百，乃漠然不一顧耶？」《新校本清史稿/ 列傳 / 卷五百八列傳二百九十五列女一/ 吳芬女》

(45)

눈이 높다

眼高，眼光高

眼高：「先生曰：他便是**眼高**，見得破。」《朱子語類/ 卷第一百三十九論文上》

(46)

눈이 밝다

眼明

眼明：「竹林七賢論曰：王戎眸子洞徹。視日而**眼明**不虧」《藝文類聚/ 藝文類聚/ 第十七卷人部一 / 目》

(47)

눈을 뜨다

睜眼, 開眼

開眼：「合目是敬，**開眼**見物便是義」《朱子語類/ 卷第十二學六/ 持守》

(48)

눈 뜬 장님

睜眼瞎子

睜眼瞎子：「不過是認得兩個字，不是**睜眼的瞎子**罷了！」《紅樓夢·第三回》

(49)

마음눈

心眼

心眼：我見了他，**心眼**兒裡愛還愛不過來，那裡還說上話來？《紅樓夢》

心眼：今智能見了秦鐘，**心眼**俱開，走去倒了茶來。《紅樓夢》

感情

(50)

눈속의 가시

眼中刺

眼中釘：「**眼中拔釘**，豈不樂哉」 《新校本新五代史/傳/卷四十六雜傳第三十四/趙在禮》

眼中鐵：「拔不去**眼中鐵**，嘔不盡心頭血」《新校本清史稿/~卷四百九十三列傳二百八十忠義七/張繼庚\從弟張繼洵李翼棠等\》

(51)

흰 눈으로 보다

白眼看

白眼：其於人也，為寡髮，為廣借，為多**白眼**。《易說卦》[疏]取躁人之眼，其色多白也。

白眼：「籍又能為青白眼，見禮俗之士，以**白眼**對之。及嵇喜來弔，籍作**白眼**，喜不慚而退」《新校本晉書 / 列傳 / 卷四十九列傳第十九 / 阮籍》

(52)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眼圈紅

눈이 빨갱다

眼紅

眼圈紅：「鳳姐兒聽了，不覺得又**眼圈兒一紅**」《紅樓夢·第十一回》

瞬間

(53)

눈 깜작할 사이

霎眼間

轉眼：「寶釵**轉眼**瞥見」《紅樓夢·第十七回》

(54)

눈을 붙이다

闔睛

合眼：那寶玉剛合上眼，便惚惚睡去。《紅樓夢》

3.1.7. 耳

귀는 신체의 청각 기관으로 잘 들을 수 있으면 총(聰)이라 하고 잘 볼 수 있으면 명(明)이라 하여 잘 듣고 보는 상태이면 총명이라 한다. 잘 알아 들으려면 머리를 좀 옆으로 비스듬히 하는 행동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노력은 귀를 기울이다(傾耳聽, 傾聽) 하고 표현한다. 흔히 보는 개 같은 동물이 먼데 소리를 들었을 경우 귀를 쫑긋거리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런 행동이 없어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귀를 쫑긋거린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아닌 데도 추상적으로 귀를 빌려 쓰는 ‘귀가 여리다’, ‘귀에 거슬리다’, ‘귀에 익다’ 등이 있다.

(55)

귀가 무르다	耳軟
귀가 여리다	耳軟

耳軟：耳朵又軟，心理又沒有計算。《紅樓夢》

耳軟：「這是什麼意思，值得吵一吵，並不留體統，耳朵又軟，心裡又沒有計算」《紅樓夢·第六十回》

(56)

귀에 익다	耳熟
-------	----

耳熟：「... 其平居教他子弟，常用此語，吾耳熟焉。脩聞而服之終身」《新校本宋史/列傳/卷三百一十九列傳第七十八/歐陽脩》

(57)

귀에 거슬리다	逆耳
---------	----

逆耳：「忠言逆耳利於行，毒藥苦口利於病」《新校本史記三家注 / 新校本史記/世家 / 卷五十五留侯世家第二十五》

逆耳：「孔子家語曰：忠言逆耳而利於行。」《新校本後漢書/列傳/卷七十四下袁紹劉表列傳第六十四下/紹子\譚》

(58)

귀를 씻다	洗耳
-------	----

洗耳：堯欲召我爲九州長，惡聞其聲，是故洗耳。《新校本史記/列傳/卷六十一伯夷列傳第一》

洗耳：「我等不當起動，洗耳愿聽佳音」《金瓶梅第十一回》

洗耳：「弟子則洗耳諦聽」《紅樓夢・第一回》

洗耳：若蒙大開痴頑，備講一聞，則洗耳靜聽。《紅樓夢》

(59)

귀를 기울이다 傾耳, 側耳

귀가 솔리다 耳傾

귀가 솔깃하다 側耳

側耳：劉姥姥只屏聲側耳。《紅樓夢》

側耳：忽聽他房中嚷起來，大家側耳聽了一聽。《紅樓夢》

側耳：黛玉聽了，倒也十分感慨纏綿，便止住步側耳細聽。《紅樓夢》

(60)

귀를 쫓긋거리다 豎耳

豎耳：「中書省設御座行禮，基獨不拜，曰：牧豎耳，奉之何爲！」《新校本明史/ 列傳/ 卷一百二十八列傳第十六/ 劉基》

(61)

이목을 끌다 引人耳目

耳目：忘其肝膽，遺其耳目。《莊子集釋/卷三上/內篇大宗師第六》

耳目：豈以常人之耳目用通於至極也。《續高僧傳(三十卷)/ 卷四 / 譯經篇四本傳二人 / 京大慈恩寺釋玄奘傳一》

耳目：「非榮耳目而觀愚民也」《墨子/第一卷/第六篇辭過》

(62)

귀밀이 빨개지다 耳根紅

耳赤：那丫頭，倒也白白淨淨兒的，有些動人心處，在那裡羞的面紅耳赤，低首無言。《紅樓夢》

耳紅：黛玉聽了，不覺帶腮連耳通紅。《紅樓夢》

3.1.8. 입

입은 먹고 말하는 기관으로 담화와 음식 의욕을 뜻한다.

(63)

입에 풀칠하다 餬口

餬口：富強者并兼有餘，貧弱者餬口不足。《新校本魏書 / 志 / 卷一百一十志第十五 / 食貨志》

(64)

젓내가 나다	有乳臭
젓내를 풍기다	散發乳味
입에서 젓내 나다	口裡有乳臭
젓비린내가 나다	有乳臭
젓비린내를 풍기다	散發乳臭味

乳臭：景暉九歲小兒，口尚乳臭《新校本魏書/志/卷一百一十一志第十六/刑罰志》

乳臭：「王曰：是口尚乳臭，不能當韓信」《新校本漢書/漢書/本紀/卷一上高帝紀第一上》

乳臭：「師古曰：乳臭，言其幼少。」《新校本漢書/漢書/本紀/卷一上高帝紀第一上》

(65)

입을 열다	張嘴
-------	----

啓口：每見則談問玄理，應對肅敬，研雖爲債數來，無由啓口。《新校本北齊書 / 列傳 / 卷四十六補列傳第三十八 / 循吏 / 蘇瓊》

(66)

입술을 깨물다	咬嘴唇
---------	-----

咬嘴：彩霞咬著嘴唇，向賈環頭上戳了一指頭。《紅樓夢》

(67)

이를 악물다	咬牙
--------	----

咬牙：「見寶玉?的臉上紫脹，便咬著牙用指頭狠命的在他額顛上戳了一下」《紅樓夢 • 第三十回》

(68)

입을 막다	塞住嘴巴
-------	------

堵嘴：當著眾人，太太臉上又增了光，堵了眾人的嘴。《紅樓夢》

(69)

턱으로 부리다	頤指
---------	----

頤指：立朝之際，或攘袂扼腕，自公卿以下，皆頤指氣使，無不?憚。《新校本舊唐書/

列傳/卷一百六列傳第五十六/楊國忠》

(70)

재갈을 먹이다	銜馬銜
재갈을 물리다	銜馬銜

馬銜：勒，馬銜也。《新校本後漢書/列傳/卷九十烏桓鮮卑列傳第八十/烏桓》

3.1.9. 코

코는 호흡하는 기관으로 그의 높낮이가 예쁘고 미운 것과 관련이 있어 체면, 긍지와 통한다.

(71)

코웃음을 치다	鼻笑
---------	----

鼻笑：「馬道婆聽說，鼻子裡一笑」《紅樓夢·第二十五回》

鼻笑：「寶玉聽到這裡，覺得不甚入耳，因想黛玉從來不是這樣人，怎麼也這樣勢欲薰心起來？又不敢在他跟前駁回，只在鼻子眼裡笑了一聲。」《紅樓夢·第二十五回》

鼻笑：趙姨娘聽說，鼻子裡笑了一聲。《紅樓夢》

(72)

콧날이 시큰해지다	鼻酸
콧날이 찡하다	鼻酸
콧등이 시큰거리다	鼻樑酸
콧등이 시큰하다	鼻樑酸
콧마루가 찡하다	鼻樑酸
코허리가 시다	鼻酸
코허리가 시큰하다	鼻腰酸
코끝이 찡하다	鼻尖酸

鼻酸：紫鵲答應了一聲，這一聲更比頭裡悽慘，竟是鼻中酸楚之音。《紅樓夢》

3.1.10. 심장

심장은 가슴 속에 있는 기관으로 인체 안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생각하고 기억하며 새기고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즉 머리와 같은 기능에 비유된다. 이것은 한중 양국인에게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마음 심(心)자는 사고, 기억, 감정을 뜻하기도 한다.

의지

(73)

마음이 있다

有心

有心：「你**有心**、奴亦有意」《金瓶梅第一回》

有心：「他心裡縱**有這心**，他也不能作主」《紅樓夢·第五十三回》

有心：「說你沒心，卻又**有心**；雖然**有心**，到底嘴太直了」《紅樓夢·第四十九回

(74)

마음이 없다

無心

마음에 없다

心裡沒有

無心：「若槁木無情，死灰**無心**，禍福不至，惡有人災」《新校本史記 / 列傳 / 卷六十三老子韓非列傳第三 / 莊子》

無心：「策扶老而流憩，時翹首而遐觀。雲**無心**而出岫，鳥倦飛而知還」《新校本晉書 / 列傳 / 卷九十四列傳第六十四 / 隱逸 / 陶潛》

無心：「說者**無心**」《新校本史記 / 列傳 / 卷六十三老子韓非列傳第三 / 韓非 / 說難》

無心：「今我**無心**復戰也」《新校本三國志/魏書/卷四魏書四\三少帝/齊王芳》

無心：「如此茶飯**無心**，坐臥不定」《紅樓夢·第四十八回》

無心：「我原是**無心**的話，誰知你屋裡的事」《紅樓夢·第五十三回》

無心：「或**無心**中錯拿了一件東西給你」《紅樓夢·第六十回》

기억

(75)

마음에 두다

放在心裡

가슴 속에 남다

留在心中

留心：今至其家，因此步步留心，時時在意。《紅樓夢》

留心：鳳姐並不在意，寶玉卻留心看時，內中並沒有二丫頭。《紅樓夢》

(76)

마음에 새기다

刻心裡, 銘心

가슴에 새기다

刻心中, 銘心

銘心：「始願已獲，**銘心**立報，永矣無貳」《新校本三國志 / 吳書 / 卷六十吳書十五 / 周枉》

銘心：「雖有**銘心**刻骨之言，無人爲我主張」《紅樓夢·第三十二回》

(77)

뼈에 새기다	刻骨
뼈에 아로새기다	刻骨
뿔골에 새기다	刻骨髓
뿔골에 아로새기다	刻骨髓

刻骨：**刻骨**定分，有死無二。《後漢書鄧騭傳》

刻骨：臣自抱鬣歸藩，刻肌**刻骨**，追思罪戾 《新校本三國志/魏書/卷十九魏書十九/陳思王植》

도량

(78)

가슴이 좁다	心窄
속이 좁다	心窄

心窄：「性躁**心窄**，每與人不合」《新校本清史稿 / 列傳 / 卷二百五十五列傳四十二 / 趙良棟 \ 子弘燦弘燮》

心窄：「也有**心地狹窄**猶懷舊怨的」《紅樓夢·第五十八回》

흥분

(79)

마음에 차다	充滿心裡
--------	------

滿意：「屯逼民家求絲縑，不**滿意**則詬罵不去，強相徵求」《新校本魏書 / 列傳 / 卷八十九 \ 補 \ 列傳第七十七 / 酷吏 / 高遵 \ 子元榮弟次文》

(80)

마음이 튼튼하다	心踏實
----------	-----

心實：湘雲道：「不是膽大，倒是**心實**」《紅樓夢》

우려

(81)

마음에 걸리다	掛心
---------	----

掛心：「翩翩桂水不忍度，懸目**掛心**思越路」《沈君攸詩》

(86)

간이 크다	肝大
간덩이가 크다	肝大
담이 크다	膽大

膽大：膽欲大而心欲小。《唐書/隱逸傳》

膽大：「今人爲經義者，全不顧經文，務自立說，心粗膽大，敢爲新奇詭異之論」《朱子語類 / 卷第一百九朱子六 / 論取士》

膽大：「世間自有一般心膽大底人」《朱子語類 / 卷第三十五論語十七 / 泰伯篇/ 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章》

膽大：「世說曰，姜維死時見剖，膽大如斗。」《藝文類聚 / 第十七卷人部/膽》

膽大：「自驕膽大，而恃兵強，因去攻二城亦攻不下」《朱子語類 / 朱子語類 / 卷第十三學七 / 力行》

膽大：「膽大是『千萬人吾往』處，天下萬物不足以動其心」《朱子語類 / 卷第九十五程子之書一》

膽大：，們的膽子比斗還大呢。《紅樓夢》

(87)

간이 작다	肝小
담이 작다	膽小

膽小：「趙德鈞之爲人，膽小謀拙」

《新校本舊五代史/漢書/卷一百八漢書十/列傳五/龍敏》

膽小：即頑童也有趁勢幫著打太平拳助樂的，也有膽小的藏在一邊的。《紅樓夢》

(88)

간을 빼 주다	掏出肝來
---------	------

披露心肝：臣今戎事已安，糧儲且繼，深願一至闕下，披露心肝。《 / 新校本舊唐書 / 列傳 / 卷一百二十一列傳第七十一 / 僕固懷恩》

披露肝膽：妾昭得以愚朽，身當盛明，敢不披露肝膽。《 / 新校本後漢書 / 列傳 / 卷八十四列女傳第七十四 / 曹世叔妻》

披露肝膽：「臣生長草野，不曉禁忌，披露肝膽，書不擇言」《新校本後漢書 / 列傳 / 卷三十下郎嗟襄楷列傳第二十下 / 郎嗟》

披肝膽：「披肝膽，示情素，君侯豈能鑒焉」《新校本南史 / 列傳 / 卷三十列傳第二十 / 何尚之 / 敬容》

(89)

간이 떨어지다

肝掉落

膽落：「諸軍已膽落，吾何以戰？」《新校本宋史/列傳/

卷四百七十四列傳第二百三十三/姦臣四/賈似道》

膽落：「聞鞞鼓而膽落股并，斯可謂雄武之國矣」《新校本遼史/列傳/卷九十五列傳第二十五/論曰》

膽落：「將士不相習，猝遇大敵，先膽落」《新校本明史/列傳/卷二百五十九列傳第一百四十七/趙光抃》

(90)

쓸개가 없다

沒膽

沒膽：那王善保家的本是個心有沒成算的人，素日雖聞探替的名，他想眾人沒眼力，沒膽罷了《紅樓夢》

3.1.12. 창자

애는 창자의 고어로 한국 관용어에서 마음과 통하다. 창자가 끊어지다(斷腸)로 마음이 초조하다는 뜻이다.

(91)

애를 쓰다

用腸子

用心：「李奶母帶領宋嬪嬪等幾個年老人用心看守」《紅樓夢·第五十七回》

(92)

창자가 끊어지다

腸斷

斷腸：「春又至，人何往，事難忘，向斜陽斷腸」《新校本宋史/志/卷一百四十志第九十三/樂十五\鼓吹上》

斷腸：「夫騰永斷腸，老牛舐犢，恩慈下流，物之口性。故子忘親易，親忘子難」《莊子集釋/莊子集釋/卷五下\外篇\天運第十四》

斷腸：「離間骨肉，傷心斷腸者，何可勝數」《顏氏家訓集解/卷第一/後娶第四》

斷腸：「啼鵲血淚染鴛鴦，連理枝殘欲斷腸」《鳳山縣志/正文/卷八人物志/人物志/貞節/徵詩小引》

(93)

고황에 들다

病入膏肓

膏肓：膏肓生疾《新校本舊唐書/列傳/卷一百二十列傳第七十/郭子儀子晤映》

膏肓：今病雖已深，猶未至**膏肓**，失今不治，遂爲痼疾矣《新校本宋史 / 列傳 / 卷三百一十二列傳第七十一 / 吳充》

膏肓：病入**膏肓**，而無可救《新校本明史 / 列傳 / 卷三百九列傳第一百九十七流賊 / 序言》

3.1.13. 血

피는 무력, 노고를 대칭한다.

(94)

피눈물	血淚
눈에서 피눈물이 나다	眼裡流血淚
피눈물을 흘리다	流血淚
피눈물이 나다	流血淚
피도 눈물도 없다	無血無淚

血淚：仰天號哭泣涕，**血淚**俱下。《新校本三國志 / 魏書 / 卷四魏書四三少帝 / 高貴鄉公髦》

血淚：「元自毀其面，**血淚**俱下」《新校本北史 / 列傳 / 卷九十一列傳第七十九 / 列女 / 隋 / 華陽王楷妃》

血淚：「臣仰天訴地，**血淚**交流，如劍戟啗心」《新校本舊唐書 / 列傳 / 卷一百八十二列傳第一百三十二 / 高駘》

(95)

피를 보다	見血
-------	----

見血：後除濟北太守，恩信大行，乃改鞭用熟皮爲之，不忍**見血**，示恥而已。《新校本北齊書 / 列傳 / 卷四十六補列傳第三十八 / 循吏 / 崔伯謙》

見血：彦和用服虔說，蓋下文『子無謂秦無人』一針**見血**之言，卽策書之意。《文心雕龍 / 文心雕龍義證 / 正文 / 卷五 / 書記第二十五 / 第一段 / 第二節》

3.1.14. 손

손은 일손, 인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의 행동인 손을 내밀다는 요구를, 손을 짓다는 거절을, 손을 흔들다는 환영 혹은 송별을 뜻하기도 한다.

신체 언어

(96)

손을 내밀다	伸出手
--------	-----

손을 뻗치다

伸手

伸手：吳諸葛恪爲丹陽太守，嘗出獵，兩山之間，有物如小兒，**伸手**欲引人。恪令伸之，乃引去故地。去故地，卽死。《新校搜神記 / 搜神記 / 卷十二》

伸手：見尸邊有老鬼，**伸手**乞肉，廣因捉其臂，鬼不得得去，持之愈堅。《古小說鉤沈 / 幽明錄》

(97)

손을 짓다

揮手, 搖手

搖手：「帝語王涯別與官，德裕**搖手**止涯，帝適見，不憚」《新校本新唐書 / 列傳 / 卷一百八十列傳第一百五 / 李德裕 \ 子燁燁子延吉崔嘏丁柔立 》

搖手：「**搖手**使止」《新校本宋史 / 列傳 / 卷四百六十四列傳第二百二十三 / 外戚中 / 高遵裕》

搖手：「**搖手**相戒」《新校本明史 / 志 / 卷九十一志第六十七兵三 / 民壯土兵 \ 鄉兵》

(98)

손을 놓다

放手, 鬆手

일손을 놓다

放下工作的手

鬆手：司棋聽了，只得**鬆手**，讓他去了。《紅樓夢》

(99)

팔장을 끼고 보다

袖手旁觀

袖手：「身爲大臣，忍坐視決裂，**袖手**局外而去乎！」《新校本明史 / 列傳卷二百六十五列傳第一百五十三 / 李邦華》

슴씨

사람은 손으로 일을 한다 하니 손이 또한 기술을 뜻하기도 한다.

(100)

손이 빠르다

手快

손이 싸다

手快

손이 재다

手快

手快：「自然使得人輕**手快**，行得順便」《朱子語類 / 卷第七十五易十一 / 上繫下 / 第十二章》

手快：嵇中散夜彈琴，忽有一鬼著械來，歎其**手快** 《古小說鉤沈/裴子語林》

(101)

손이 서투르다

手拙

手拙：「貧寒猶**手拙**，操杼安能工」《文選 / 詩丁 / 第二十五卷 / 贈答三 / 郭泰機答傅咸》

生手：「百人身命，千金戰船，陪可假於**生手**」《重修臺灣縣志 / 正文 / 卷八武衛志 / 武衛志 / 船政》

(102)

손에 익다

手熟

熟手：「上以洋匪未靖，臺地屢變，欲得**熟手**為守」《續修臺灣縣志 / 正文 / 卷五外編 / 外編 / 叢談》

熟手：「以陸路轉運維艱，協商直隸督臣李鴻章，派員及**熟手**工匠至吉林開廠」《新校本清史稿 / 志 / 卷一百三十七志一百十二兵八 / 邊防 / 東三省》

熟手：「其餘雇用**熟手**之華匠百餘人應用」《新校本清史稿 / 志 / 卷一百四十志一百十五兵十一 / 製造》

(103)

손을 거치다

經手

經手：「上曰：伊**經手**之工未完，應革職留任」《新校本清史稿 / 本紀 / 卷七本紀七聖祖二 / 康熙三十三年》

經手：「軍國要密。無不**經手**」《新校本北齊書 / 列傳 / 卷五十 \ 補 \ 列傳第四十二 / 恩倖 / 韓鳳》

經手：「歷合州判官，事不**經手**，吏不敢決，雖下之，民不肯從」《新校本宋史 / 列傳 / 卷四百二十七列傳第一百八十六 / 道學一 / 周敦頤》

經手：「購料事宜，向由怡和洋行**經手**」《新校本清史稿 / 志 / 卷一百四十九志一百二十四交通一 / 鐵路》

(104)

손을 멈추다

停手

停手：歐陽脩每於書有疑，折簡來問，對其使揮筆，答之不**停手**，脩服其博。《新校本宋史 / 列傳 / 卷三百一十九列傳第七十八 / 劉敞》

(105)

손을 잡다

抓手 , 携手

携手：丁夫不扶鋤，而懷丸挾彈，**携手**上山遨遊，或好取土作丸賣之，《新校本漢書 / 列傳 / 卷一百下敘傳第七十下》

携手：若天啓心，子導蜀意，誠此意有**携手**之期。《新校本三國志 / 蜀書 / 卷三十八蜀書八 / 許靖》

(106)

손을 떼다	抽手
손을 빼다	抽手 , 抽身

抽手：其初得人，喜笑，則臂上覆【，移時而後食之。人因爲筒貫於臂上，待執人，人即**抽手**從筒中出，鑿其臂於【而得擒之。《山海經校注 / 海經 / 卷五海內南經 (山海經第十) / 臯陽國》

(107)

손을 나누다	分手
--------	----

分手：「交手後即**分手**也」《顏氏家訓集解/卷第二/風操第六》

分手：「梁簡文樂府歌云：**分手**桃林岸，送別峴山頭」《新校本舊唐書/志/卷二十九志第九/音樂二/清樂》

分手：「避人五陵去寶劍值千金**分手**脫相贈平生一片心」[王維]《送朱大入秦》

分手：「別陸才子詩曰。解纜出南浦。征棹且凌晨。還看**分手**處」《藝文類聚/第二十九卷人部十三/別上》

分手：「你我不必同行，就此**分手**，各幹營生去罷」《紅樓夢·第一回》

장악

손안에 쥐여 있다는 무엇을 잘 제어하고 있다는 말이고 손 뒤집다는 것은 쉽다는 뜻이다.

(108)

손안에 넣다	放入手中
--------	------

掌中：「天下平均，合爲一家，動發舉事，猶如運之**掌中**」《新校本史記 / 列傳 / 卷一百二十六滑稽列傳第六十六》

掌中：「孔子謂或人言知馴之說者，於天下之事如指視以**掌中**之物」《新校本史記 / 書 / 卷二十八封禪書第六》

掌中：「囊括天下，運**掌中**」《新校本宋書/志/卷二十二志第十二/樂四》

(109)

손바닥을 뒤집듯 하다	如反掌
-------------	-----

步履艱難：皇太后違和，頭暈復作，**步履艱難**。《新校本清史稿 / 本紀 / 卷八本紀八聖祖三 / 康熙五十六年》

(114)

발을 구르다	頓足
발을 동동 구르다	頓足
발을 탕탕 구르다	頓腳
팔짝 뛰다	頓足

頓足：德璋追至諸暨道中，兄弟相持**頓足**哭，爭欲就死。《新校本宋史/列傳/卷四百五十六列傳第二百一十五/謁義/鄭綺鮑宗巖附》

頓足：片紙告誡張，萬民雪淚讀，傳抄未停手，曲踊時**頓足**。《彰化縣志 / 正文 / 卷十二藝文志 / 藝文志 / 詩 / 心中賢人歌（袁枚）》

踩腳：秦鐘跑來便摟著親嘴，智能兒急的**踩腳**說：「這算什麼呢」《紅樓夢》

(115)

무릎을 맞대다	合膝, 促膝
---------	--------

促膝：**促膝**論文，歡甚 《新校本明史/列傳/卷二百八十六列傳第一百七十四文苑二/徐禎卿/楊循吉》

3.1.16. 어깨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항상 어깨를 쓴다. 그래서 어깨는 책임을 지는 대명사가 된다. 무거운 짐에 의해 어깨가 축 늘어지고 짐이 제거되면 어깨가 가벼워진다는 법이다.

(116)

어깨를 나란히 하다	併肩
------------	----

比肩：「唐堯、舜、禹**比肩**並列」《新校本史記 / 列傳 / 卷一百三十太史公自序第七十》

比肩：「**比肩**相布是左右相挨近」《齊民要術校釋 / 卷七 / 造神麴並酒第六十四\ 女麴在卷九藏瓜中》

並肩：「朕所與**並肩**友好諸大臣，何不遺一人以送朕老耶？」《新校本清史稿 / 列傳 / 卷二百二十五列傳十二 / 何和禮 \ 子多積禮和碩圖都類》

併肩：「今者歸老，更欲低頭與小兒曹共槽櫪而食，**併肩**側身於怨家之朝乎」《新校本後漢書 / 列傳 / 卷二十四馬援列傳第十四 / 馬援》

3.1.17. 꼬리

동물이 꼬리를 흔드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개가 꼬리를 쳐들고 좌우로 흔드는 것은 무엇을 달라는 뜻이다.

(117)

꼬리를 치다	搖尾巴
꼬리를 흔들다	搖尾巴

搖尾：猛虎處深山，百獸震恐，及其在檻之中，**搖尾**而求食，積威約之漸也。《新校本漢書 / 列傳 / 卷六十二司馬遷傳第三十二》

搖尾：示以恩威，使之**搖尾**乞憐。《福建通志臺灣府/外紀/崇禎元年▲十七年》

3.1.18. 색깔

색깔로 사리에 비유하는 것이 희다(白)는 없다는 뜻이고, 검다(黑)는 잘못하다는 뜻이며 흑백(黑白)은 그르고 옳은 것을 뜻하는 것이다.

(118)

흰소리 치다	說白話
흰소리를 내다	說白話
흰소리를 하다	說白話

白話：寶玉笑道：「你又說**白話**。蘇州雖是原籍，因沒了姑爹姑母，無人照看，才接了來的。《紅樓夢》

(119)

검다 희다 말이 없다.	不說黑白
흑백을 가리다	分辨黑白

白黑：薛宣爲中丞，所貶退稱進，**白黑**分明。[注]白黑猶言輕濁也。《漢薛宣傳》

黑白：今皇帝并有天下，別**黑白**而定一尊《新校本史記 / 本紀 / 卷六秦始皇本紀第六》

黑白：惡惡臭，而爲天理人欲強弱之證，必使之於是是非非如辨**黑白**《新校本宋史 / 列傳 / 卷四百三十列傳第一百八十九 / 道學四朱氏門人 / 陳淳》

3.1.19. 표정

(120)

웃어 넘기다	一笑置之
--------	------

일소에 부치다

付之一笑

一笑：哈麻服新衣侍側，帝方啜茶，卽嚙茶於其衣。哈麻親帝曰：「天子固當如是耶！」帝一笑而已。《新校本元史 / 列傳 / 卷二百五列傳第九十二姦臣 / 哈麻》

3.2. 동물

동물의 습성에 빗대어 사람의 행위와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121)

우물 안의 개구리

井底之蛙

井底蛙：辭歸，謂囂曰：「子陽井底蛙耳，而妄自尊大，不如專意東方。」《新校本後漢書 / 列傳 / 卷二十四馬援列傳第十四 / 馬援》

(122)

물을 얻은 고기

得了水的魚

魚得水：物之性亦然，是以魚得水而游，馬逸駕而走，鳥得風而黨，火得薪而熾《新校本舊唐書/列傳/卷一百六十六列傳第一百一十六/元漣》

(123)

어육이 되다

成爲魚肉

魚肉：樊噲曰「大行不顧細謹，大禮不辭小讓。如今人爲刀俎，我爲魚肉，何辭爲。」《新校本史記 / 本紀 / 卷七項羽本紀第七》

(124)

모깃소리만하다

像蚊子的聲音

蚊蚋：故曰視秋毫之末者不見太山，聽蚊蚋之音者不聞雷震。《 / 列子集釋 / 卷第四仲尼篇》

(125)

쇠털같이 많다

多如牛毛

牛毛：肅宗歷位，文雅大盛，學者如牛毛，成者如麟角。《新校本魏書/列傳 /卷八十五補列傳第七十三 / 文苑》

牛毛：聞俗言而志不沮者，萬夫之中，有一人爲多矣。故爲者如牛毛，獲者如麟角也。《抱朴子內篇校釋 / 極言卷十三》

(126)

닭살이 돋다	起雞皮
소름이 끼치다	起雞皮疙瘩
소름이 돋다	起雞皮疙瘩

雞皮：噫子老矣，鶴髮雞皮《藝文類聚/第六十九卷服飾部上/杖》
(127)

호랑이 새끼를 기르다	養小老虎
호랑이 새끼를 키우다	養小老虎

養虎：此所謂「養虎自遺患」也《新校本史記/本紀/卷七項羽本紀第七》
(128)

잠자리 날개 같다	像蟬翼般
-----------	------

蟬翼：色如紫金，有光耀，別之則薄如蟬翼《新校本梁書/本紀/卷五十四列傳第四十八/諸夷/海南諸國/中天竺國》

蟬翼：胡懷琛曰：勝謂勝任也。古人多以蟬翼指最輕之物。《列子集釋/卷第四仲尼篇》

3.3. 자연 현상

하늘과 땅, 해의 바꿈 등 자연 현상에 비유한다.

(129)

삼추 같다	如三秋
-------	-----

三秋：彼采葛兮，一日不見，如三月兮。彼采蕭兮，一日不見，如三秋兮。彼采艾兮。一日不見。如三歲兮。《毛詩/國風/王/采葛》

(130)

하늘 높은 줄 모르다	不知天高
-------------	------

天高：天高地厚，踟而躅之。《新校本後漢書 / 列傳 / 卷六十下蔡邕列傳第五十下》
(131)

하늘과 땅	天地 天壤
-------	-------

天地之別：如此則禮者天地之別也。《新校本史記/書/卷二十四樂書第二》

天壤：案宗廟之制，祖宗之號，皆身沒名成乃正其禮。故雖功赫天壤，德邁前王，未有豫定之典

《選自【二十五史】/新校本晉書/志/卷二十八 志第十八/五行中/言不從/序言》

明鏡：心如**明鏡** 《新校本梁書/本紀/卷五十一列傳第四十五/處士/陶弘景》

借鑑：「故實」指足以效法**借鑑**的舊事。亦可指典故史實 《朱子語類/點校說明》

(138)

정곡을 얻다 得到正鵠

정곡을 찌르다 刺到正鵠

正鵠：子曰。射有似乎君子。失諸**正鵠**。反求諸其身。《斷句十三經經文/禮記/中庸》

(139)

그릇이 작다 碗小,小器

통이 작다 桶小,小器

小器：論語謂「**小器**」，此云「不賢」者 《論衡校釋/第十八卷/感類第五十五》

(140)

헌신짝 버리듯 하다 棄之如敝屣

敝屣：今人有一毫係累，便脫洒不得，而文子有馬十乘，乃棄之如**敝屣**然。此亦豈是易事！《朱子語類/卷第二十九論語十一/公冶長下/子張問曰令尹子文章》

(141)

바늘방석에 앉다 坐針氈

針氈：如坐**針氈** 《晉書杜錫傳》

(142)

붓을 놓다 擱筆

擱筆：「謂所作不能持論，寧可**擱筆**也」 《文心雕龍義證/正文/卷四/論說第十八/第一段/第十三節》

擱筆：「韜筆，猶言**擱筆**」 《文心雕龍義證/正文/卷六/風骨第二十八/第一段/第六節》

(143)

굴레를 벗다 脫離桎梏

굴레를 쓰다 加上桎梏

굴레를 씌우다 加之桎梏

桎梏：諸囚徒私解脫**桎梏**，加罪一等 《新校本漢書/列傳/卷九十酷吏傳第六十/義縱》

(144)

전철을 밟다

踩前轍 ,重蹈覆轍

前轍：事有變通，奈何欲遵前轍也。《新校本晉書/列傳/卷八十九列傳第五十九/忠義/嵇紹》

覆轍：夫剛德實人主之大權，不可以久出而不收，覆轍在前，良可鑒也。《新校本宋史/列傳/卷四百一列傳第一百六十/柴中行》

(145)

낙인을 찍다

烙印

낙인이 찍히다

被烙印

烙印：有所產駒，即烙印取勘《新校本元史/志/卷一百志第四十八兵三/馬政》

(146)

관밖

局外

관밖의 사람

局外人

局外：丙子，以日、俄構兵，中國守局外中立例，宣諭臣民《新校本清史稿 / 本紀 / 卷二十四本紀二十四德宗二 / 光緒二十九年》

局外：各省防軍需用軍火甚急，而火藥子彈尤爲大宗。外洋守局外之例，不肯代購《新校本清史稿 / 志 / 卷一百四十志一百十五兵十一 / 製造》

(147)

늪에 빠지다

陷入泥淖

泥淖：歸途陷泥淖，炬火燎茅蓬。《蘇軾冬至日與諸生飲詩》

4. 결론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속담과 관용어의 일부는 중국어 번역문에 의거하여 원전을 추적해 본 결과, 중국의 옛 문헌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고문헌에서 한 이야기가 농축되어 몇 글자만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한 사자성어 같은 것이 한국어의 다음절 특성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번역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 이야기를 내포하는 성어는 한국어에서 속담으로 되고 명사절 형식의 성어는 관용어가 된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어 사전에까지 올려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문화 교류의 자취라 할 수 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역사가 긴 속담과 관용어는 현대 중국어에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로 보아 한중 양 언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류의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에게 학습의 편의를 만의 하나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다행이다.

참고 자료

- 박영준, 최경봉 (1996) 관용어 사전, 태학사
宋在璇 (1993) 상말속담사전, 東文選
宋在璇 (1995) 여성속담사전, 東文選
宋在璇 (1995) 농어속담사전, 東文選
宋在璇 (1997) 동물속담사전, 東文選
宋在璇 (1997) 주색잡기 속담사전, 東文選
원영섭 (1993) 우리속담사전, 세창출판사
楊人從 (1995) 韓語俗諺釋義及分析, 未出版
楊人從 (1998) 韓語慣用語研究, 未出版
李基文 (1953) 俗談辭典, 一潮閣
정태룡 (1994) 우리말 상소리 사전, 프리미엄 북스
정태룡 (1997) 한국의 욕설백과, 한국문원
정태룡 (2000) 토속어 성속어 사전, 우석
임용기, 정호용 (1997) 토지 사전, 솔출판사
동아출판사 (1995) 우리말 도움 사전
教育部成語典 <http://140.111.34.46/chengyu/>
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 <http://www.sinica.edu.tw/>